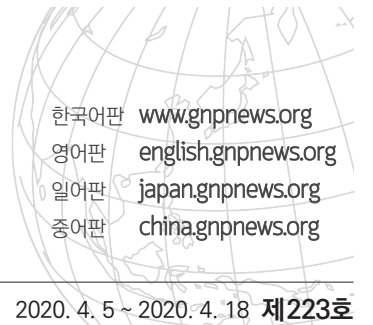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4. 5 ~ 2020. 4. 18 제223호



▶ 세네갈 한 교회의 문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제공: WMM)

주님께 사로잡힌 성전 문지기

따사로이 비치는 햇살을 피해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날씨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법 한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할 만큼 그가 열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도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다윗. 그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예겐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

의 전부였다. 그는 왕이었지만 단 하루를 살지언정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그에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은 단번에 해

갈해 주셨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한다. 우리의 전부되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신부로 오늘을 걷는다.

[GNPNEWS]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편 84:10)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속에서도 종교집회 허용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종교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리려진 이동 제한 및 격리 조치에서 제외되는 필수 서비스에 종교활동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필수적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20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종교활동과 복권판매소 영업, 근로 감독, 전력 생산과 송전, 석유 생산, 과학 연구, 의료·법의학 관련 활동 등이 ‘필수 서비스’에 포함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기독교인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풀이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리우데자네이

루 축제 전야제가 준비되고 있는 와중에 리우 해변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앞으로 브라질 정부는 국가적으로 기독교 도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연설한 바 있다. 그는 “브라질은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정을 존중하고 국민의 충성심을 얻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크리스천이며 브라질이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뛰어난 지도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일 기준 2915명, 사망자는 77명이

며, 지난 20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GNPNEWS]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기도 |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종교집회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의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브라질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과 회복을 나타내시옵소서.



▶ 브라질의 한 교회 예배 현장(©복음기도신문)



마음의 눈을 밝히사 (7)

조각난 복음이 아닌, 총체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퍼즐 한 조각만으로는 완성된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는 한 퍼즐 조각을 원래 위치에 제

대로 맞춰 넣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

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바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조각난 퍼즐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용 복음, 치유용 복음, 가정 회복용 복음, 성공용 복음... 성경 구절도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와 주제에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골라서 ‘조각난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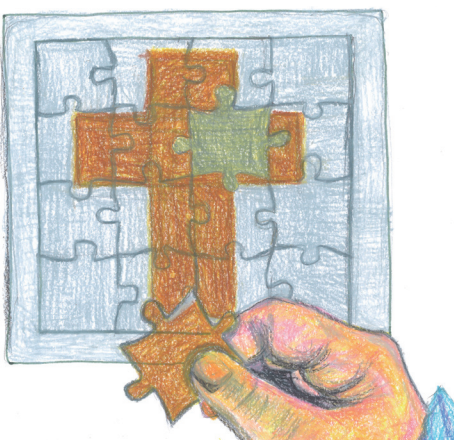
오늘날 ‘복음만으로는 안 되더라.’며 심리학, 의학, 경영학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상이 가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복음이 다른 것을 동원해야 간신히 복음답게 되는, 그런 허술하고 부족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총체적 복음이 아닌 조각난 복음을 들고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며 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당도, 대

단한 신학 체계도, 신학교도 없었지만 초대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아 로마를 덜덜 떨게 만들었고, 헬라의 철학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쳐 오면, 세상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격렬한 고민이 일어납니다. 조각난 복음이 아닌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완전한 믿음’뿐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라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캘리포니아, 국가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 시켜주겠다는 법안 발의



▶ 국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 인디고고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 보조금 펀딩 포스터(출처: 인디고고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 스콧 위너(민주) 의원이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형평 재정 지지(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라는 이 발의안(AB2218)은 남자에서 여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정부가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술을 하는 병원과 의사에게도 성전환 수술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친 동성애 관련법을 제정하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이에 다음세대의 성경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활동하는 TV(Traditional Value)넥스트는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에 주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위험한 일을 크리스천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크리스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캘리포니아는 십대들이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클리닉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2014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AB2218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이런 법안을 잘못 사용하는 길을 더 활짝 열어 주며, 양심 없는 의사들이나 단체들은 십대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을 안 해줄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TV넥스트는 “트랜스젠더 정의 프로젝트 운동단체들이 이런 재정 지지를 바라며 자신을 이미 동성 애자라고 밝힌 상·하원들과의 친분을 눈감을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수십 년간 태아의 신체·신장까지 팔았다는 비 윤리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가족 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PP)은 이런 법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오면서 여성 클리닉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때 매년 5억 7300만 달러를 지원 받아오던 PP가 트럼프 행정부의 생명존중(Pro-Life)정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이 법이 제정되면 또다시 재정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동성애, 친트랜스젠더 단체인 PP는 이미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 폐지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다.

TV넥스트는 끝으로 “이 발의안을 제출한 하원의원들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검은 양심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GNPNEWS]

미국, 필리핀 등 코로나 사태로 국가 기도의 날 선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를 위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3월 넷째 주를 ‘국가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나는 필리핀 전 국민이 확고한 믿음과 종교적 전통 및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기도로 간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경의 시기 때 마다 평화, 연합, 사랑을 가져오고 역경을 이기는데 팔을 걷어 부친 위대한 영웅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데에는 필리핀 국민들의 종교와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힘을 구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의 행위로 이 기도에 함께하시길 격려한다. 함께라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은 당초 5월 7일로 따로 정해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기도의 날을 별도로 지정했다.

또한 영국의 주요 교단들이 3월 22일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오후 7시에 각자의 집 창문 앞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다. 영국 침례교 연합은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영국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사람들이 (이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GNPNEWS]

北, 50년간 교화소 내부 곳곳에 시신 매장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박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북한 노동교화소 내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과거 이곳에 수용됐던 한 여성 수감자에 따르면 이곳은 사망자들을 곳곳에 분산 매장해, 땅이 비옥하

게 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운영돼 온 이 교화소에서 탈북시도 주민들을 엄격하게 탄압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교화소는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제1교화소’로, 1962년부터 1972년 사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촬영된 위성

사진과 이곳에 수감됐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교화소로 추정된다.

제1교화소의 전체 면적은 약 10만 7000㎡로 외부 돌레와 내부 돌레 이중으로 감싸져 있고 안으로 출입구와 경비초소, 본 수용소, 관리본부, 작업 건물, 가축 시설, 지원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20 ~ 3.28)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스페인, 코로나 확산으로 노인들이 양로원에 버려지고 있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스페인에서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내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완전히 버려져 심지어 코로나19로 사망한 뒤에 침상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님, 바이러스가 두려워 양로원, 요양시설에 노인들을 방치해 버린 의료진의 모습이 인간의 부패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스페인을 덮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진국, 아동 성 착취물에 중범죄자 처벌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25)이 구속된 가운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님,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만드신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서울시, 예배 강행한 교회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주말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서울시가 확진자 진단부터 치료, 방역 등에 쓴 모든 비용을 교회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고 2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시는 결국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님, 코로나 사태의 주범을 교회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보호해 줄 정부 없는 7000만 난민들 매우 취약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정치적 탄압을 피해, 생계를 위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등지고 떠난 7000만 명의 난민들은 국경 봉쇄, 자가 격리 권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정부가 없어 어느 누구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 되십니다. 이때 난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4월 8일 ~ 4월 18일

- 4월 6일 ~ 4월 11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현**)010-4612-9399, **4.6(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4.7(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4.7(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8(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4.9(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4.1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4.10-11(14-16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6교회 진행중.

- 4월 13일 ~ 4월 18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4.13-17(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13,15-18(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14,16-18(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14,17(10-12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4.17(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4.17(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4.17(10시)-1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코로나 특집

코로나와 싸우는 전 세계... “3시간씩 드리던 예배가 그림습니다”

21세기 들어 인류가 함께 맞이한 최악의 재난중 하나로 기록될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 통신원들을 통해 접수된 열방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소개한다. <편집자>

파키스탄, “휴교·영업단축 등 기간 길어지면 폭동 우려”

그동안 잠잠했던 파키스탄은 이란을 다녀온 순례자들과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로 인하여 갑자기 확진자들이 600명 이상(3월말 현재 1201명)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학교는 이미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관공서 그리고 식당과 커피숍, 이발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2주간 문을 닫고 있으며 가게들도 단축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사관에서 온 공지 사항은 하루 빨리 이곳을 떠날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국제선 항공이 모두 2주간 중단된 상태이다.

이곳은 병원 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만약 교민 중에서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생긴다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끼리 조를 편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자가격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인회는 얼마의 방호복을 확보하여 확진자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현지 상황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고 생활용품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선교단체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을사람들은 뉴스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현지교회는 예배 후 서로 악수하면서 또한 허깅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닦아야 한다고 알려 줬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 악수하고 허깅하는 것을 포기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배를 금지하려다가 1시간을 허락했다. 그러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되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별로 심방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3시간씩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

스리랑카, “줄이 길어 물건 사기가 어려운 상황”

스리랑카는 현재 전 지역을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까지 통행금지 되었다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제되었고, 다시 목요일 오전 6시~12시까지만 해제됐다. 현재 통행금지가 됐다. 현재 확진자는 102명(3월말 현재 106명)인데,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열악한 의료상황 때문이다.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서 물건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줄이 짧은 마켓에 갔는데 야채는 없었지만 사과를 살 수 있어 감사했다. 물건을 사러 나가면 동양인인 우리에게 대한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한국과 스리랑카와 열방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H.S.>

콩고민주공화국, “NGO 의존도 높은 지역은 긴장 상태”

그동안 조용하던 이곳도 8일 확진자 한 명이 나온 이후로 어제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3월말 현재 51명). 아프리카 대륙으로는 25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다. 거주지인 고마는 사실 수도인 킨샤사보다 르완다가 더 가까운 위치로, 키갈리에 확진자가 나와서 어제 부룬디 르완다 국경은 폐쇄됐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3월 30일부터 고위험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나라의 특성상 외국 NGO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곳 고마는 여전히 유럽이나 파키스탄, 인도에서 오는 평화유지군이나 유엔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아 긴장이 된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아랍권 국가에서는 많은 상권을 갖고 있기에 외국인 출입이 많다.

아직은 확진자가 없는 고마에 아침은 평화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의료시설과 이미 에볼라와 말라리아 그리고 에이즈에 노출된 지역이라 열이 있어도 순간 이것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또 자각을 못할 수 있어, 긴장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지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배포되지 않는 한 마스크 사용은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미 에볼라 때부터 가는 곳마다 손 씻기, 열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 누구보다 손은 참 잘 씻고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확진자 한 명에 무서우리만큼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윤성운·김경희>

인도, “전국민의 이동을 경찰이 통제”

지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인도 중앙 정부는 전국민의 이동 통제를 실행 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웨스트벵갈의 주정부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삶에 가장 필수적인 활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학교, 종교 활동, 공장, 상점 등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집안에서만 생활할 것을 명령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은 이미 중지되었고, 인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국제선도 당분간 비행이 금지됐다. 길거리에서 실제 경찰들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인도 정부와 인도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직 코로나 감염자 수가 536명(3월말 현재 727명)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위생관념도, 병원 인프라도 약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정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보호하심을 함께 기도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인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식당들은 이십일 정도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쉬는 동안 공기가 이례적으로 맑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J.S.>

캄보디아, “경제활동 중단으로 국민자들의 삶은 어렵다”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한창 증가 추세에 있을 때 한국 교민들만 현지인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확진자 발생 지역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3월 17일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교모임이 금지됐다.

K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포이펏 교회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 오다가 지난주부터 마을 이



▶ 통행금지 상태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기합을 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출처: Global News 동영상 캡처)

장이 주민들의 모임을 단속하면서 어린이 단 7명만 예배에 참석했으나, 이젠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

K 선교사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선 영상예배 등 다른 차선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아예 모든 것이 막혀 버린다는 의미다. 실망과 걱정하는 마음이 크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기에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캄보디아는 중국발 코로나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

인과 관광객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위축은 두드러지게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며 “외국인과 접촉한 현지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종교 활동까지 금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교인들 중 90% 이상이 극빈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2주마다 가정에 나눠주던 쌀이나 생필품을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어려운 때를 넘어가려고 한다. 한국 교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율은 급격하게 올라 선교사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K> [GNPNEWS]

믿음으로 코로나 감염 이후 승리하고 있는 스페인 의사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스페인인 한 의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에게 매일 자신의 상황을 블로그에 올려 알리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유니버시타리오 라 파즈 병원(Universitario La Paz) 응급실 소속의 예일 텅 첸(35) 박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기독교인인 그는 자가 격리 생활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염의 증상에 대한 설명과 폐 초음파 영상을 함께 트윗하고 있다.

첸은 자신의 경험이 그의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첸의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는 CBN 뉴스에서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 가벼운 몸살, 약간의 열, 특별히 두통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젊은 사람들은 종종 경미한 증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첸은 CBN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학계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아는 알려진 바이러스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침착하게 전문가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첸 박사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며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침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 첸 박사가 공개한 자신의 폐 사진(출처: 예일 텅 첸 트위터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32)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렸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창세기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홍수 전에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식물을 먹었다. 판다곰의 이빨은 날카롭다. 보기엔 육식동물의 이빨 같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에 있는 물사슴은 군도(날이 흰 긴 칼)이빨, 호랑이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다. 물사슴도 초식동물이다. 과일박쥐, 채식 원숭이 역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9장에서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홍수 전에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수 후, 첫

번째 변화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동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노아야, 모든 산에 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리가 먹을수록 동물들이 고통당한다.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파괴한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

홍수 후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럽다. 무신론적으로 쓸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참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윈은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코 하나님이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높여준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확히 오늘날 가르치는 진화론이다. ‘죽음’은 진화론자들의 음모의 영웅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그



▶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출처: Pixabay)

런 세상을 사람이 망가뜨렸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담의 잘못이다.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 ‘왜 이런 차를 만들었소?’라며 제조사를 탓할 수는 없

다. 제조사를 떠날 때는 완전한 모습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폐차장에서 살고 있다. 나는 지구에 사는 것이 좋고 미국의 녹스빌이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폐차장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사 11:6)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표범이나 사자를 이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엄마 제가 발견한 큰 고양이 좀 보세요. 키워도 되나요?” “물론이지 아가야, 큰 고양이를 뒤뜰에 데려가서 풀을 먹여라.” 사자는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항의하시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사 11:7)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자기 뜰에 있는 곰을 찍은 비디오에는 곰이 두 시간 동안 풀만 먹고 있었다. 성경은 말한다.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사 65:20)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계 20:4)’ 성경에서 아주 신념적인 구절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 세대 끝에 천 년이라는 시간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천 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에덴동산의 상태로 회복된 채로 말이다. 아이들은 개인 공룡 애완동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주 신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스리랑카 폭탄 테러 생존자들의 간증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지난해 스리랑카의 비타킬로아 시온교회는 부활절 폭탄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한 성도 31명을 잃었다. 처음에는 사망자가 28명이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존자 3명이 사망해 31명이 되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테러 후 지난 5월, 함께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온교회 희생자 가족들을 찾았다.

테러가 나던 4월 21일 부활주일 예배가 막 시작되었을 때 시온교회 마당에서 폭탄이 터졌다. 그날 시온교회에는 136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26명이 사망했

다. 주일학교 교사 스테파니는 그날 폭탄테러 후에 아이들이 괴로워하던 것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눈만 감으면 불길이 보여서 눈을 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손에 촛불을 들고 찬양을 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고, 선생님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 베를리니는 아이들에게 도전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어린이가 있나요?” 5~6명이 손을 들었다. 베를리니 선생님은 그 아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14세의 디나는 남동생 케빈을 부활절 폭탄 테러로 잃었다. 케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가장 먼저 손을 든 여섯 명 중의 한 명이었다. “나는 아침을 거의 다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폭발음이 들렸어요. 케빈은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나봐요. 케빈은 계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날 내 친구 7명이 죽었어요.” 디나 역시 병원에 입원했다. 폭탄 파편이 뼈를 뚫고 들어가 치아를 부러뜨렸다. 아직도 입술에 파편 자국이 남아 있다.

케빈의 아버지 살렘은 “케빈은 아주 사교성이 좋아서 모두에게 말을 붙이곤 했어요.”라고 말했다. “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 케빈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케빈의 집 앞에 걸려 있다.(출처: OpenDoors 캡처)

하시든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케빈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라메쉬와 사시가 테러범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쿠마란 목사는 “만일 테러범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200명 이상이 죽었을거예요.”라고 말했다. 라메쉬와 사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라메쉬의 아내인 크리스티는 “5분 후면 예배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폭발음을 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몰랐어요. 나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야 남편이 죽은 걸 알았어요.”라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지요. 그래도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라고 고백했다. [GNPNEWS]



▶ 폭탄 테러 전 아이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던 모습(출처: OpenDoors 캡처)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지상중계 |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 (2.끝)

“반성경적 이데올로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라!”

한국교회와 사회는 지금 도덕적 가치와 천부적 인권, 가정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의 도전 앞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성경적 진리와 세계관을 보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이러한 때를 맞아 복음기도동맹은 각자의 삶의 터전의 골방에서 온라인 메시지와 기도 인도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모임'은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유튜브 김용의TV를 통해 중계된다. 다음은 메시지 요약. <편집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김지연 대표
(한국가족보건의협회)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하다. 우리가 갈 분향은 완전한 영화로움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것을 알기에 더 치열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타고난 동성애자는 몇 퍼센트인가? 없다. 이 답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하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동성애보다 '동성애 범죄화'와 싸우고 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동성애와 싸우는가? 동성애 처벌법이 있어 왔던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동성애에 대해 조용한 사회였다. 혈족중심의 가족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에 정부 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법조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 법은 유럽에서 90년대에 통과된 법이다. 이것은 동성애자들과 사이 좋게, 평등하게 지내자는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배제, 처벌, 각종 징계를 주는 법이다.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과 같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결혼제도와 가정이 파괴되고, 다음세대가 말씀에서 떠났다. 많은 10대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려한다. 영국은 10

년 사이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여성만 4000% 증가했다. 사탄은 성기를 잘라내고 불임의 몸을 만들면서 '나는 인권을 지켰다. 드디어 다양성과 자유를 찾았다.'고 거짓마취를 한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은 평등법뿐 아니라 공공질서법 안에 2중, 3중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미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2015년 한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교과서, 공문서, 가정 통신문, 모든 것 안에 적용되었으며, 10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부디 한국은 그러한 사태를 막아내기 바란다."고 간절히 전했다.

왜 아빠가 돌이키고 물으면 학교 폭력, 언어폭력(hate speech)이 된다. 룩셈부르크는 총리가 동성애자다. 이런 상황 아래서 아이들의 세계관은 어그러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해리포터를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는다.

2004년 스웨덴 법원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오케 그린(Ake Green)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최초로 선고했다. 이미 스웨덴은 2003년 동거 게이들에게 자녀 입양을 허용했다. 전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시행했고, 아이들의 가방에서 콘돔과 피임약이 나온다. 이것은 인간을 성애화시키는 포르노그래픽한 성교육이었다. 교인이 60% 이상이었던 스웨덴은 현재 기독교가 1%가 안 된다. 미국은 동성결혼법이 연방대법원에서 통과되어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성교육 시행하자 아이들 가방에서 콘돔과 피임약

동성결혼이 통과되는 것은 단지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관, 세계관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 안에 있는 성적 충동에 악법을 보태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성을 결정해라. 성별이 아니라 네 정체성이 중요하다. 네가 신이다.'라고 거짓메시지를 계속 주는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강제되어서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다. 나의 자녀가 나와 반대 진영에

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글로벌 성혁명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성관계를 허용하고 법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자기성적 결정권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제 간음은 죄가 아니다. 캐나다와 한국에 수간(獸姦) 인권단체가 생겼다. 소아성애도 성적지향이라고 한다. 독일의 유명 대학교는 소아성애를 강의했다. 이미 죄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어두워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2008년, 2011년~2013년에도 발의되었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막아주셨다. 동성애뿐 아니라 성매매합법화와 도색잡지 편의점 판매도 막아냈다. 그러나 동성애는 계속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권의 이름으로 신권에 도전하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공기와 자연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되었다고 하신 것을 인간의 제도로 옳다고 만드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악을 인지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첫 단계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신앙적 양심에 따라 방어진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 복음과 예수님을 드러낼 때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된다. 골방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공격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외쳐야 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까지 구하며 가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전 세계의 마지막 안전지대와 방주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김강호 선교사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100년 전 망했던 나라가 식민지를 거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외교적, 경제적 고립과 국론분열로 다시 맞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



▶ 김강호 선교사(©로그미션)

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명기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 32:7)라고 말씀한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역사에 묻고자 한다. 1894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영국 여성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에서 양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양반을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정도로 보았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인구의 40%였으며 인간취급을 받지 못했다. 상민들의 삶도 거칠었다. 땅과 집을 빼앗긴 사람들은 산적이거나 화적이 되고, 또 만주 지역을 떠도는 난민이 되기도 했다.

나라 역시 어려웠다. 당시 조선은 일본, 그리고 청나라, 거대제국 러시아, 또 서구 열강에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19세기 후반부터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찾았다. 그들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뿌렸다. 한글 띄어쓰기를 비롯 6.25전쟁 때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의수족을 해주고, 그외에도 교육, 과학, 문화 등 수많은 영역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았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인권,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이슬람 18쪽, 불교 6쪽을 할애하는 반면, 기독교는 2쪽에 불과하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1945년에 해방된 이후 북한은 공산화 됐다. 6.25가 발발하면서 기독교인 100만 명이 월남했다. 공산주의 사회가 좋았다고 한다면 이 많은 무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왔을까. 그런데 지금 역사 교육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은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분열되어 있다. 보

수(保守)는 지키고 또 지킨다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보인가. 기존 가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진보일까? 예수님 당시는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이셨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하신 진보인사였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사탄의 말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부를 건 보수주의자였다. 그리스도인의 진보와 보수적 가치는 말씀을 떠나서, 십자가 복음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시작했다. 1948년 5월 31일 첫 제헌의회가 열렸을 때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은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일을 이뤄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시작해 19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는 3.15 부정 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결정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하야를 아쉬워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을 하야시키려는 시위, 4.19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을 찾아가서 “젊은이 장하다.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지. 우리 백성 살아있다.”고 말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한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것을 자복했다. 우리의 위기는 강한 적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돌이키자. 그리고 다음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받은 자인지 가르쳐야 한다.

[GNPNEWS]



▶ 김지연 대표(©로그미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1)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집트 제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권능으로 400년 노예생활을 하던 언약 백성 수백만 명을 건져 뽑아내셨다.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이 한 사람, 양 새끼 한 마리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던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역사에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드라마틱했다.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으로 타락해 버린 사사시대

역사상 이런 은혜를 입은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은 사사(士師)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왕국(神政王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으로 타락해 버렸다.

여호와 신앙의 상징이자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막은 더 이상 찾는

자들이 없었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의 명맥(命脈)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던 엘리는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다만 여호와와의 전 문설주 곁의 자에 앉아 있었다(삼상 1:9).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로 여겨졌던 엘리 가문, 특히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위기의 가장 끝자락에서 마지막 절망을 더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하게 짓밟고, 조롱했다.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는 자식들의 망령된 짓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

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삼상 3:11~14)

마지막 등불과 같은 역사의 해답을 가진 교회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역사상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가장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았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은 그 누구도, 어떤 방편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한 줄기 빛조차 비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작금(昨今)의 이 나라의 현실은



일러스트=노주나

비관적이다. 사사시대와 방불(彷彿)하다. 십 수 년 동안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하자.’고 외쳐왔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할 힘이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마지막 이 시대,

역사의 해답을 가진 교회가 못 일어나면 누가 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8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하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뜯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_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의 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한국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KWMA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대한민국 각처에서 모든 믿는 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 성령 안에서 공동 기도제목으로 간구하며,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모은 식비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곳에 헌금하면 된다.

KWMA는 연합공동 기도제목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주님의 긍휼이 임할 것을 신뢰하며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길 힘을 구하고 ▶모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또 길고 힘든 근무 시간동안 체력을 유지해 주시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성

령의 위로와 함께 해주심을 알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새로운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고 어려운 교회와 선교단체가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기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전 세계적으로 좋은 행정과 협력으로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GNPNEWS]



교회가 관광지로 전락한 스웨덴... 고령의 기도자 만나다



일러스트=고은선

다음 두 편의 글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스웨덴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다.
루터교회를 방문하며 본격적인 아웃리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역사박물관을 돌아보며 스웨덴의 역사를 들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

님의 은혜를 저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스웨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다. 기독교가 국교이기에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 이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매우 웅장하여 지금이라

도 주님이 임하실 것 같은 성전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흠어진 예배 속에 무너져 가는 교회와 다음세대 위해 고령의 나이에 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기도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은혜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는데 비행기 점검 등으로 3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출발하게 되었다. 경유지인 중국 상황은 더 큰 믿음과 연합이 필요했다. 비행기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중국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팀원들은 모두 당황하며 분주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그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다. 25년 전에 밟았던 중국의 달라진 모습 때문이었다. 물론 주님에 대한 반역은 여전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중국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픔이고 고난이기에 중보가 절실했다.
잠시 중국을 위해 기도했다.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 주님은 이곳 중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잠시나마 중국에 머물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었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로 기도해야 할 자리에 우릴 세우심에 너무 감사했다.
[GNPNEWS] 이희순

나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다

10대 다음세대가 참여하는 빛의 열매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답답하고 마음속으로 불평을 했다. 안식일에 악을 범하지 말라는 목상 말씀을 기억하며, 곧바로 회개했다.
하루는 선교사님의 센터에서 현지인 언니들을 만났다. 교제할 때 말이 안 통해서 참 아쉬웠다. 센터 언니들은 점심시간에 와서 밥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밥 주는 것을 감사했고, 부모님이 안 계신 언니와 오빠들이 대단해 보였다.
3일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됐다. ‘3일 동안이나 어떻게 하지?’ 솔직히 하기 싫었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기도

참여하니 기도할 말이 생기고 기도 시간이 무척 신이 나고 좋았다. 마지막 날에 모두 한 명씩 기도를 했다. 매번 장난처럼 기도하던 한 형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도 시간도 기억난다. 말이 안 통하고 더워서 불평하고 있을 때 같이 전도하던 센터의 현지인 언니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 그래도 교회에 앉아 주님께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 언니들과 오빠들,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다. 현지인 언니와 울면서 작별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캄보디아에 남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린다. 마라나타!
[GNPNEWS] 미셀(14)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로 국경 봉쇄한 북한... 내부 경제 얼어붙어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두 달 전 국경을 봉쇄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지역 간 이동도 차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주민들은 무역은 물론 밀수도 끊기고 시장 활동도 여의치 않으면서 내부 경제도 썩어 얼어붙고 있다고 최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자.’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 과정 특히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포한 방역대전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 문제”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는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초보적인 의무도 지키지 못하여 나라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논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옷조차 갖춰 입지 못한 꽃제비들은 마스크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또한,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랑자들을 통제한다는 방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당국이 외출 및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중국과의 모든 교역이 차단된 상황도 쓸쓸한 거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꽃제비들은 마스크 없이 거리 활보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라는 선전구호를 각 기관에서 나눠주고 대문에 붙이게 하고 있다. 이 구호는 지난 1월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역원 원장이 쓴 글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달 31일 조선중앙TV에서도 동일한 이름의 꼭지로 보도됐다.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동신문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매일 같은 구호 아래 방역 상황과 예방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빠진 한 두 차례도 전면 특집 기사를 통해 코로나 예방 선전을 진행했

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선전 구호 아래에는 ‘탄가스 주의’, ‘물을 끓여 마시자’는 문구도 붙었다. 북한은 연탄을 주 난방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설비가 열악해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민반별로 사고 예방 조직인 탄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물을 끓여 마시자.’는 구호

는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 북한의 상당수 지역은 낙후된 상수도 시설로 인해 깨끗한 수도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4월 워터저널에 공개한 ‘북한 물 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북한의 수도물 수질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끓여 먹어야 하지만 가구의 83.2%가 그냥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니세프가 2017년 5150가구를 대상으로 음용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원의 23.5%가 내열성 대장균군(TTC)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수도물이 음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런 수도물조차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 평소 우물이나 냇가 등에서 물을 길어 물탱크에 저장해 뒀다. 필요할 때 끓여 먹고 있다. [GNPNEWS]



▶ 북한의 한 의료진이 주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ARIRANG NEWS 캡처)

복음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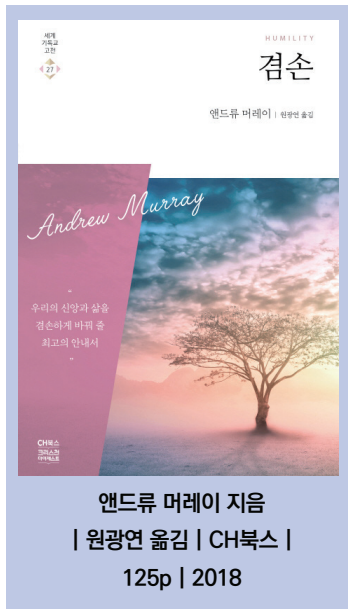
핍박하는 자를 향한 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 상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학대받은 사실보다는 우리가 그 학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핍박이나 학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
당신은 당신을 학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 이런 성령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당신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GNPNEWS]
성령님 (A.W. 토저, 2006)에서 발췌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앤드류 머레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을 통과한 겸손이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자리로 설명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주님의 전부를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주 앞에서 인간이 그 자신을 낮추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고 당연하며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겸손을 흉내 내보려고 하면 나의 본성은 이를 반대하려고 한다. 사실 창조주 앞에서 피

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반응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왜 그렇게 이것을 거부할까? 어쩌면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겸손보다는 교만에 친화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

그러나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은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분이셨다. 빌립보서 2장 7~8절에는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묘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옛 자아에 매여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대

신 자신이 만물의 찌기로 여겨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꺼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자들이다. 복음은 겸손을 흉내 내지 않고, 교만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김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할렐루야!

복음이 겸손한 삶을 살게 한다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없고 주님만 남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이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일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 박해와 환난의 환경에서도 그렇다. 또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삶의 자리, 무방비 상태로 겪게 되는 일상일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

라”고 말씀한다. 주인 앞에 있는 종처럼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에게 종처럼 연합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한 겸손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자신을 낮추고 지체들의 종이 되기도 어렵다’고 내뱉는 내게 주님은 이 책을 통해 내 실상을 보게 하셨다.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얻게 될 불이익이 싫고, 지체들의 종이 되었을 때 종처럼 취급받게 싫었던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을 통과한 겸손인 것을 알게 하셨다. 참 자유가 임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낮아짐으로 겸손이 실체가 되는 일상과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GNPNEWS]

김은영 선교사

겸손이라는 진리는 원하기는 하지만, 이를 수 없는 덕목으로 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동안, 겸손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겸손은 내가 이루어야 할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길 원하는 가장 복된 자리였다.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청소를 하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다”

교회 4층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과거에 4층 교육관 양 옆을 증축했다고 들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불법 증축된 곳을 소방법에 의해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고 불법적인 모든 공간을 철거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지난주부터 이사 아닌 이사가 시작됐다. 4층 당회실을 3층 유아실로 옮기느라 수많은 책을 싸고 날랐다. 3층의 천장이 낮아 높이가 맞지 않은 책꽂이를 한 칸을 잘라서 내려오기도 했다. 무거운 책상과 의자들을 옮기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려서 그런지 다리도 아프고, 양쪽 팔이 후들후들 거러기도 했다.

철거하게 된 공간에 있었던 물건은 돌 곳이 없어 다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물건이라고 해봐야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몇 년 전 청빙을 받으면서 정리를 위해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남편은 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는 버려야 한다고 밀어붙이며 욕심각신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버리는 일을 두고 남편과 입장이 달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계단 밑 창고의 물건들, 방송실

한편에 있는 소강대상이며, 못 쓰는 인쇄기 등 남편에게 버리자고 건의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도 어마어마했다. 수납 공간 안에 들



어 있는 잡동사니들은 치우고 치워도 끝도 없었다. 오래된 먼지가 굴러다녔다. 심지어 1층 계단 밑 창고에는 쥐 한 마리가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목은 먼지, 오래된 쓰레기들을 치우며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이렇게 더러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 아차 싶었

다. 지금은 괜찮다는 것인가?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하는 나도 잠깐 문을 열어놓아 쥐 한 마리가 들어온 것처럼, 나는 어디에 문을 열어 놓

을 탓하고 있었다. 작은 먼지는 구석구석 굴러다니며 뭉쳐져 큰 먼지가 되어버렸고, 한 마리 쥐가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청소를 하다 마스크를 쓴 채 고백하게 되었다. 주님은 나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즐고 닦아서 깨끗해지는 수준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십자가로 완전히 새것으로 바뀐 것이었다.

감사하다. 불법이 무너져서 감사하다. 교회를 더욱 깨끗케 해주셔서 감사하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너희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4:8)

청소를 통해서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나는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으며 내가 아닌 그 어떤 원인을 찾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일을 같이 해주길 바랐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을 탓하고 있었다. 작은 먼지는 구석구석 굴러다니며 뭉쳐져 큰 먼지가 되어버렸고, 한 마리 쥐가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청소를 하다 마스크를 쓴 채 고백하게 되었다. 주님은 나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즐고 닦아서 깨끗해지는 수준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십자가로 완전히 새것으로 바뀐 것이었다.

감사하다. 불법이 무너져서 감사하다. 교회를 더욱 깨끗케 해주셔서 감사하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너희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4:8)

청소를 통해서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김진숙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3. 12 ~ 3. 2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주선 고은영 권영기 김경선 김다경 김선희 김유남 김정임 김혜신 박경희 박숙자 원종란 윤경석 이미영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차상복 차인순 차정규 최영란 하은숙 한한수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땅끝공인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